참관일

학교 　 학년 　 이름

전시활동지

⌂ **담인복식미술관**은
1999년 조형예술대 의류학과 장숙환 교수의 개인 소장품 5,000여 점을 기증받아 개관하였습니다.
이번 **<신>전**은 조선시대 예복용 신발을 시작으로 근대기의 가죽신과 고무신까지 변천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은

대학의 문화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1935년 4월 6일 이화여대 본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때에는 부산에 마련된 임시 캠퍼스인 필승각에서 박물관을 열어 문화재를 보호했습니다. 1953년 서울로 돌아와 지금의 본관에 다시 문화재를 전시하였고, 교수들과 사회 유지들의 수집품을 기증받아 소장품을 더욱 풍부히 하였습니다. 1989년 현재의 박물관을 마련하여 고대부터 현대까지 전 시대를 아우르는 유물 25,000여 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매년 다양한 주제의 전시와 교육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복용 신

왼쪽은 왕실의 한 잔치 장면입니다.
예의를 갖춘 관리들이
어떤 신발을 신고 있나요?

아래 두 신발 중에 골라보고
그 이름을 써주세요.

①

②

정답 :

이름 :

이 신발은 제혜(祭鞋)입니다. 제혜는 제사를 지낼 때 제관들이 신었던 신발입니다. 앞코에 여러 줄의 코실을 꿰어 장식하였는데요,
안쪽에 달린 끈은 어디에 쓰는 끈일까요? 한 번 적어봅시다.

이 끈은

마른 신

목이 있는 신은 '화' 라고 하고 목이 없는 신은 '혜' 라고 합니다.
혜는 재료나 장식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구분됩니다.

아래 신발을 보고 알맞은 내용과 연결하세요.

태사혜

이 혜는 신발 앞코가 뾰족해서 마치 구름의 꼬리 같아요. 그래서 '구름 운雲' 글자를 이름에 붙였어요.

운혜

이 혜는 대표적인 신발로 비단으로 신을 감싼 고급 신이에요. 줄무늬 선(태사문)이 들어있는게 특징이에요.

녹피혜

이 혜는 장식없이 깔끔하게 만든 신이에요. 사슴의 가죽으로 만들어서 장식이 없어도 멋있어요.

비오는 날

옛날 사람들은 비오는 날 어떤 신을 신었을까요? 비단신을 신을 수는 없었겠죠? 옛날엔 길이 흙 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진흙이 된 길을 걷기 위해 두 가지 종류의 신발을 신었답니다.

아래 신발을 잘 관찰해보고 알맞은 내용을 적으세요.

이름 :

재질 :

굽의 모양 :

비오는 날 신으면 왜 좋을까?
:

이름 :

재질 : 가죽에 기름을 먹임

굽의 모양 :

비오는 날 신으면 왜 좋을까?
:

어린이용 나막신을 찾아보세요. 나막신에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오른쪽 나막신에 그림을 그려 나만의 나막신을 만들어보세요.

신 만들기

신발 만드는 도구를 살펴보아요.
신발 앞코 모양을 잡아주는 도구도 있네요.
그럼 아래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을 위해 쓰는 것일까요?
한 번 적어보아요.

이 도구는